

“돈 없어 못떠나”... ‘몰캉스’족 늘었다

〈쇼핑몰서 휴가 즐기기〉

복합쇼핑몰서 전시 관람·쇼핑·식사 광주신세계·롯데 고객 늘고 매출 올라

연일 폭염이 이어지자 더위를 피해 시원한 백화점에서 쇼핑과 식사, 전시 관람 등을 즐기며 여름휴가를 보내려는 ‘몰캉스족’들이 늘고 있다. 특히 날씨가 더울수록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 매출에도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다.

6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수(신세계 회원 중 구매고객에 한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가량 늘었다.

한낮 기온이 37.7°C로 무더위를 보였던 지난 5일에는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이 지난해 같은 날보다 11% 더 많았다. 지난 1일도 기온이 36.7°C를 기록하면서 평일임에도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이 지난해보다 11% 늘었다.

이는 백화점이 신세계 카드 회원 중 구매실적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로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백화점측은 내다봤다.

특히 광주신세계의 경우 CGV광주터미널,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인 1층 ‘유스퀘어 문화관’이 인접해 있어 백화점 유동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등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실제 광주신세계 1층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크게보기, 작게보기’ 여름방학 특별전’을 다녀간 관람객 수는 같은 기간 하루 평균 23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나 급증했다.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늘면서 이 기간 백화점 매출도 9% 가량 늘었다. 특히 즉석조리식품(약 29%)과 여름잡곡(약 20%)의 매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즉석조리 식품의 매출이 15% 가량 늘었다.

광주신세계 패션스트리트(이마트 광주점 지하1층) 나이가 매장에서는



연일 35°C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를 피해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 주말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광장에서 전시를 관람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모습. (광주신세계 제공)

의류부문 매출은 저조하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원한 소재의 기능성 의류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신사복 갤러리 매장에서도 대표적인 여름 소재인 ‘모헤어’와 ‘쿨 울’ 소재를 찾는 고객이 대부분이며 이들 제품이 매장 전체 매출의 80%를 넘었다.

광주신세계 패션스트리트(이마트 광주점 지하1층) 나이가 매장에서는

따파 열기 매출 기능이 뛰어난 ‘드라이핏’ 상품의 매출이 매장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더위를 피해 오전부터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며 “전시 관람하고 지하1층 식품코너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즐긴 뒤 저렴체 매출의 80%를 넘었다.”

광주신세계 패션스트리트(이마트 광주점 지하1층) 나이가 매장에서는

▲ 몰 캉 스 (Malling+Vance)=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쇼핑, 영화, 교육, 식사 등을 한번에 해결하는 소비계층을 일컫는 몰링(Malling)족에 바캉스를 붙인 신조어로 여름휴가를 복합쇼핑몰에서 즐기는 것을 말한다.

불황의 그림자 주택연금 가입 열풍

1만명 돌파 초읽기

주택연금(정부보조 역모기지론) 가입자가 이달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이 더 내려갈 전망이다에 가입 조건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어서 성장세는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는 10명 가운데 약 8명이 수도권 거주자여서 지방 가입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가입건수는 9천665건이다. 올해 월 신규가입 건수가 300건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초 1만 번째 가입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8년 695건인 가입건수는 2009년 1124건으로 61.7% 증가

했다. 2010년(2016건)에는 전년 대비 79.4%, 2011년(2936건)에는 45.6% 늘었다.

이런 증가세는 자녀에게 노후 생활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고령층의 의식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신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전통적인 가족 매커니즘이 무너지는 세대가 주택연금 확산에 반영된 것이다.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이 내려가면서 주택 보유와 상속 매력이 떨어진 점도 한몫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수도권에 쏠린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가입건수는 9천665건이다. 올해 월 신규가입 건수가 300건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초 1만 번째 가입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규가입자 중 수도권 비율은 2008년 80.0%였다. 이후 매년 1~3%포인트 안팎 하락해 지난해에는 73.6%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소폭 증가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금융애로 현장 청취 최수현 금감원 수석부원장 광주 간담회

최수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6일 오후 평동산업단지내 우리로광통신(주)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중소기업 대표, 현지소재 금융기관 점포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금융현안과 중소기업 금융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청취 해소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영세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를 호소하고 금융기관의 적극적 금융지원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최 수석부원장은 은행별 중기대출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독려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대출·보증부대출을 활성화해 경쟁력이 취약한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경기침체에 따른 정상기업의 흑자도산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

대형저축은행 대주주들의 ‘꼼수’

9곳, 임원 등기 않고 경영권 행사...책임 회피

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 중 9곳의 대주주가 부당한 방법으로 경영권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스위스, 현대스위스2, 신한, 공평, 세광, 푸른, 신한, 모아, W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9곳의 대주주는 실질적으로 경

영권을 행사하면서도 결재는 하지 않거나 아예 임원으로 등기하지 않는 등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이런 식으로 경영에 개입한 것은 비등기 임원이거나 등기임원이더라도 결재라인에서 빠지면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 책임은 피하면서 연봉은 최고 10억대에 달하는 저축은행 대주주도 있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대주주 1명이 지난해 총 10억원의 연봉을 챙겼다. 또 현대스위스, 푸른 등 10곳의 대표이사 평균 연봉은 5억1000만원에 달했다.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보다 1억 가까이 많은 액수다. /연합뉴스

“여유 있을때 미리 연금”

국민연금 선납제 시행 한달 552건 접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미리 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최대 5년 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뒤 한달 동안 접수된 연금 보험료 선납 신청은 모두 552건, 하루 평균 27.6건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작년 전체 일평균 신청 건수(5.0)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552건 가운데 5년 선납 신청은 175건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경우 전체 229건의 절반에 가까운 135건이 5년 장기 선납을 원했다.

국민연금 선납제도는 1년 선납이 기본이지만 지난해부터 50세이상 가입자에 한 해 5년까지 앞당겨 낼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연합뉴스

증권가 감원 칼바람

1분기 294명 줄어

여의도 증권가에 다시 감원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증권사들은 올해 1분기부터 위기관리 차원에서 직원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 자리는 오히려 늘었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직원은 불황의 그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6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63개 증권사 전체 직원 수는 작년 말 4만 2682명에서 올해 1분기 말 4만 2388명으로 0.7% 감소했다.

감소폭이 작은 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증권사 직원 수가 줄어든 것은 리턴 사태의 혼란이 한풀 꺾인 2009년 2분기 이후 12분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요즘처럼 살벌한 증권가 분위기는 이례적이라는 의미다. 올해 1~3월에 직원 수가 가장 많이 순감한 증권사는 동양증권이었다.

3000명에서 2922명으로 줄었다. 미래셋증권(-69명), 삼성증권(-31명), 현대증권(-25명) 등 대형 증권사들이 뒤를 이었다.

전체 직원 대비 감원 비율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유화증권으로 직원이 98명에서 88명으로 10명(10.2%) 감소했다. 한양증권(-7.2%), 리빙투자증권(-6.4%), IBK투자증권(-3.7%) 등 중소형 증권사들이 조직을 큰 폭으로 축소했다.

모든 증권사가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아니다. 한국투자증권(76명), 신한금융투자(36명), 키움증권(29명) 등 올해 1분기에 직원 수가 순증한 회사들도 있었다.

“감원 폭탄”은 주로 계약직 직원들한테 떨어졌다. 63개 증권사의 정규직 직원 수는 작년 말 3만 4천338명에서 올해 1분기 말 3만 4282명으로 0.2% 줄어든 데 그친 반면에 계약직 직원 수는 8166명에서 7916명으로 3.1% 감소했다. /연합뉴스

비세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ij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정적임
원래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전국최다시공비 적정운영
*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출장전적 무료!!

시공전 시공후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비가 최소 30%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도 사원하다.
4. 슬라브 열매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간다.
5. 장독대, 발레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일러는 것보다 3~4배 더 잘들린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포판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로 다시 뚫어서 물이 빠지지 않게 한다.

* 상가 특허 등록 및 이미지 도용시 처벌받으실 것임 고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시에 우리측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견뎌도 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충기 없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미터로 새로 뚫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빠짐 걱정 없습니다. - 황금국-

방수를 한 것이 방지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중에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종호씨가 있을 뿐 아니라 방 양구적이 다 시공을 했을때 역시 슬라브 지붕에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봉준-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에도 색도 안 변하고 여름에 불에서 일하고 불이오면 첫째, 선선하니 시원하고 선충기 안들어오 되고 겨울에는 외출이 덜하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달 남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순준-

한눈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

휴먼스피치 전문교육 : 스피치불안증해소, 발표, 설득, 토론, 프리젠테이션, 협상, 사회진행, 방송토론, 방송연설, 커뮤니케이션스킬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교육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진정한 당신의 경쟁력입니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 설득을 잘하는 사람! 공감을 이끌어 내는 사람!

어디서나 배울 수는 있어도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휴먼스피치’에서는 전문교수의 특별한 지도를 받습니다!

탈출!! 스피치불안증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교육과정

교육의 개요

교육기간 : 2012년 9월 4일(화) ~ 12월 18일(화) 15주과정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19시~22시 (3시간 집중교육)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203)
교육대상 : 공무원, 기업CEO, 전문직종사자, 금융인, 일반직업인
주요내용 : 스피치불안증해소 / 표현기법훈련(비언어훈련) / 언어적기법(메시지구성법, Attention skill) / 설득기법 설명기법 / 공감기법 / 커뮤니케이션스킬 / 모니터링훈련

교육신청

접수기간 : 2012. 8. 6일 ~ 2012. 8. 24일
인터넷신청 : 네이버카페-휴먼스피치문화원 (광주교육센터) 수강신청
전화 팩스 : 교육지원서 작성 후 팩스로 송부 (Fax, 053-755-0326)
이메일신청 : humanspeech@naver.com

주요 교육 내용	주요 교육 내용
제 1회 ~제 2회 Orientation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원리 이해	비언어적 스피치스킬
제 3회 ~제 4회 비언어적 스피치스킬 Body-motility 스피치 상황에서의 몸짓	Voca 오소 훈련(목소리조절 프리징)
제 5회 ~제 6회 언어적 스피치스킬 메시지구성법(메시지 구성법)	비언어적 오소를 활용한 심층훈련 스피치말뭉치 구축훈련
제 7회 ~제 8회 발표기법(발표준비) 발표준비(발표준비)	상황스킬을 위한 Role play 기법
제 9회 ~제 10회 발표기법(발표준비) 발표준비(발표준비)	상황스킬을 위한 Role play 기법
제 11회 ~제 12회 발표기법(발표준비) 발표준비(발표준비)	상황스킬을 위한 Role play 기법
제 13회 ~제 14회 발표기법(발표준비) 발표준비(발표준비)	상황스킬을 위한 Role play 기법
제 15회 발표기법(발표준비) 발표준비(발표준비)	상황스킬을 위한 Role play 기법

휴먼스피치문화원 교육의 특징

1. 탄탄한 원리와 기법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합니다.
2. 스피치를 통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기법을 터득합니다.
3. 스피치발달중에서부터 자신감 스피치까지 심도교육을 합니다.
4. 전문교수 및 강사진으로 교육생 한분 한분을 책임집니다.
5. 교육이수 후 후연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해드립니다.

휴먼스피치문화원 대표/원장 이진학

- 휴먼스피치문화원 / 휴먼AD / 휴먼Lamer 대표
-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겸사
- 계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겸사
- 휴먼스피치 전문교육사

휴먼스피치문화원 설립 2007. 5월
• 신간대학교 겸사 2010. 신간대학교 겸사 1998.
• 신간대학교 겸사 2008. 신간대학교 겸사 2008.
• 신간대학교 겸사 2008. 신간대학교 겸사 2008.
• 신간대학교 겸사 2008. 신간대학교 겸사 2008.

휴먼스피치문화원 HUMAN CULTURE CENTER

문의 1588-6117